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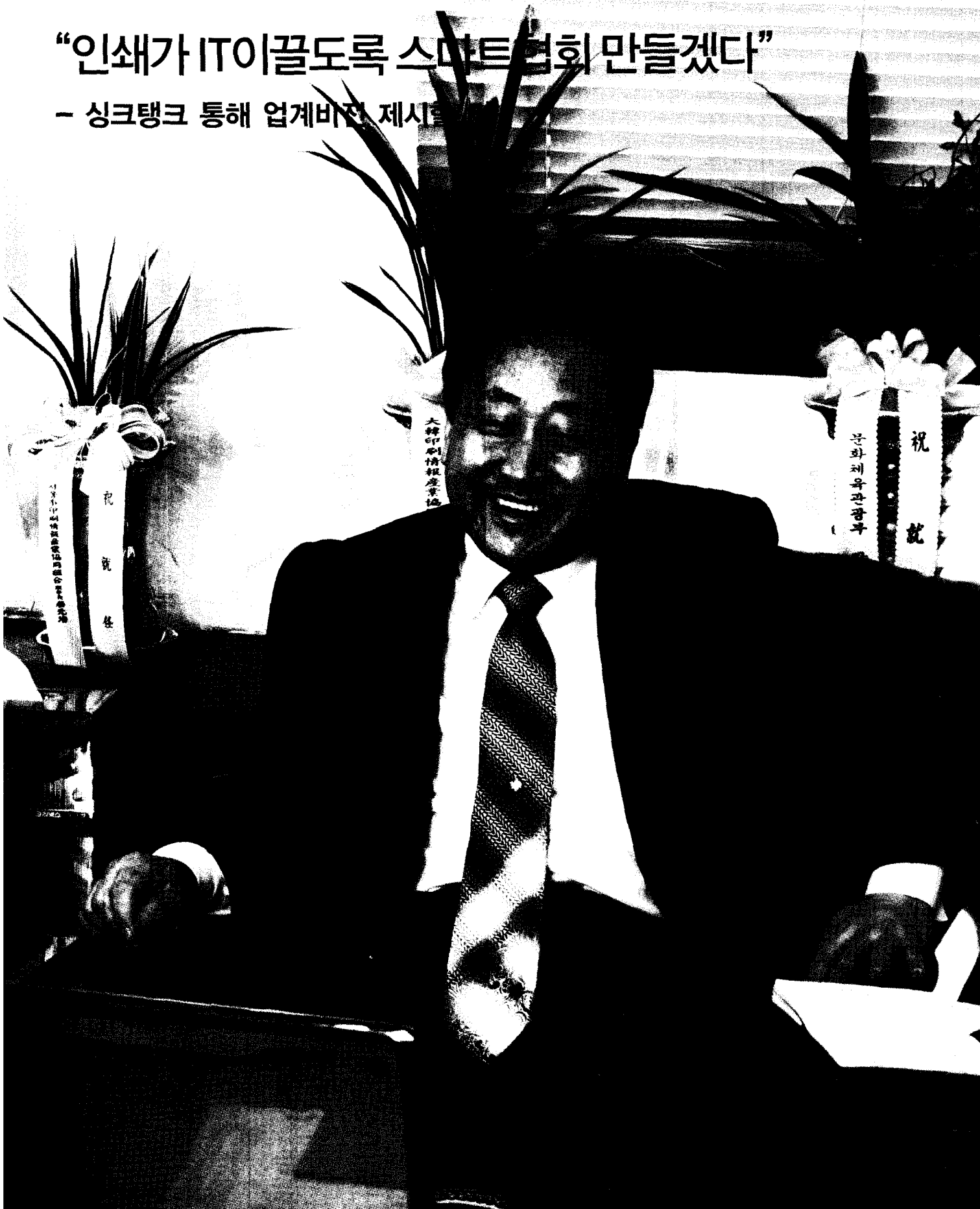
● 기자간담회

김남수 대한인쇄문화협회장은 지난 3월 15일 11시 협회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남수 회장은 앞으로 인쇄업계를 이끌어갈 방향과 소회를 솔직히 털어놓았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쇄계 안석현 발행인, 인쇄문화 박진우 부장, PT 이현진 기자, 인쇄저널 오혜경 과장, 인쇄산업신문 조차주 부장, 본지 임남숙 차장이 참석했다.

김남수 대한인쇄문화협회장 기자간담회

“인쇄가 IT이끌도록 스마트협회 만들겠다”

- 싱크탱크 통해 업계비전 제시할 계획





Q 취임 소감과 중점 추진사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경선없이 회장에 선출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회원님들과 홍우동 명예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취임사를 통해 몇가지 다짐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를 반드시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속과 다짐은 지키기 위해 하는 것인 만큼 초심을 잃지 않고 회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협회 회장에 뜻을 두면서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스마트협회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인쇄가 IT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협회가 앞장서는 것입니다. 디지털로 대변되는 오늘날의 인쇄환경은 단체가 앞장서서 이끌어 가야 합니다. 협회는 인쇄문화 발전의 큰 틀을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과 회원들의 회비로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입니다.

따라서 저는 IT시대의 인쇄 발전방안 강구, 인쇄인의 위상 제고와 홍보, 인쇄물 수출증대, 인쇄진흥재단 및 박물관 건립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인쇄문화산업진흥법을 개정하는데도 모든 역량을 발휘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쇄인들이 사회적으로 대접받고 진정한 문화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Q 인쇄문화산업진흥법을 업그레이드시키겠다고 하셨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무엇입니까.

2006년에 각고의 노력으로 제정한 인쇄문화산업진흥법은 우리 업계의 큰 보호막이자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기둥입니다. 다만 그 구체적 내용이 업계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소하고 IT시대를 대비하는 데는 미흡하기 때문에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부분에서 업그레이드가 필요한데 보안과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머지않아 그 구체적 내용을 설명드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Q '인쇄문화산업진흥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가장 중점을 둘 부분은 무엇입니까.

'인쇄문화산업진흥 5개년 계획' 수립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6년에 제정된 인쇄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정부 차원의 인쇄문화산업진흥 5개년 계획이 수립되는 것인데 여기에 인쇄문화산업의 중장기 발전 방안과 정부의 지원사항 등을 담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해 전문가 그룹으로 TF를 구성하고 관련단체와 업계, 언론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공청회를 개최하여 올해 안으로 명실상부한 진흥계획을 마련할 것입니다.

Q 인쇄업계의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고 그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우리 업계의 당면과제는 역시 물량난, 자금난, 인력난, 비현실적인 인쇄단가, 과당경쟁, 원부자재 가격의 폭등 등을 꼽을 수 있겠지요. 사실 이러한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기에 쉽게 해소될 사항이 아닙니다. 특히 최근 들어 IT산업의 발달과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의해 대량정보들이 무한정 쏟아져 나오면서 인쇄업계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인쇄문화산업진흥법을 개정하고, 인쇄물수출을 증대하며, 관련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협회 내에 '싱크 탱크'를 구성하여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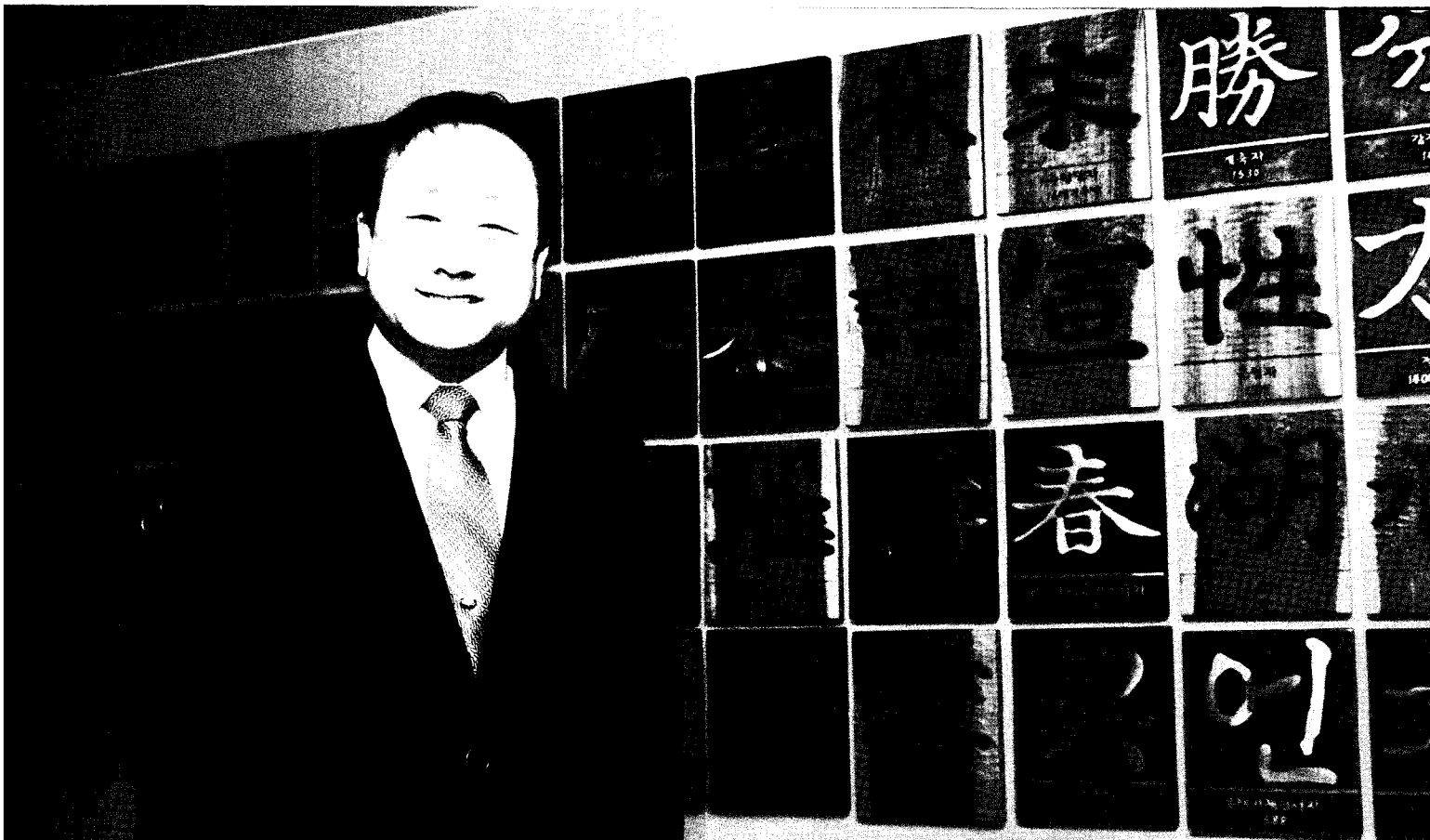
Q 취임사에서 '싱크 탱크'를 발족하겠다고 밝히셨는데 구성방향과 역할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요즘은 IT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쇄산업은 IT산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인쇄의 미래는 기약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쇄의 미래를 진정으로 고민하고 그 해결방안을 찾는 노력이 시급합니다. 우리 업계에도 유능하고, 젊고

패기가 넘치며, 미래를 걱정하는 인재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중심으로 협회 산하 위원회 성격의 '싱크 탱크'를 구성하여 인쇄업계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꿈꾸는 '싱크 탱크'의 최종적인 모습은 작을지는 몰라도 강하고 뛰어난 '한국의 인쇄 헤리티지재단'으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Q 인쇄물 수출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이를 위한 향후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잘 아시다시피 국내 인쇄시장은 포화상태입니다. 해외시장을 적극 개척하지 않으면 업체 간 과당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도산업체도 늘어날 것입니다. 다행히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쇄물 수출증대를 위한 지원에 적극적입니다. 우리 협회에 정부의 지원으로 인쇄수출지원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관련전문가도 채용하여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인쇄물수출 홈페이지 구축과 해외홍보물 책자 발간, 해외 매체에 광고 게재, 해외전시회 참가, 시장개척단 파견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이러한 사업을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100여 곳이 넘는 해외무역관에 대량의 홍보책자를 보내 우리나라 인쇄문화를 홍보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 인쇄의 미래를 진정으로 고뇌하고 그 해결방안을 찾는 노력이 시급합니다. 우리 업계에도 유능하고, 젊고 패기가 넘치며, 미래를 걱정하는 인재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중심으로 협회 산하 위원회 성격의 ‘싱크 탱크’ 를 구성하여 인쇄업계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꿈꾸는 ‘싱크 탱크’ 의 최종적인 모습은 작을지는 몰라도 강하고 뛰어난

‘한국의 인쇄 헤리티지재단’ 으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Q 올해 어떤 해외전시회에 참여해 한국인쇄관을 조성할 계획이신지요.

인쇄물 수출증대와 한국인쇄의 홍보를 위해 해외전시회에 적극 참가할 예정입니다. 4월에 개최되는 차이나프린트와 5월에 개최되는 북엑스포아메리카, 10월에 개최되는 프랑크푸르트도서전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특히 5월에 열리는 북엑스포아메리카에는 시장개척단을 함께 꾸려 인쇄물 수출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다만 IGAS2011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KIPES 준비 관계로 참가계획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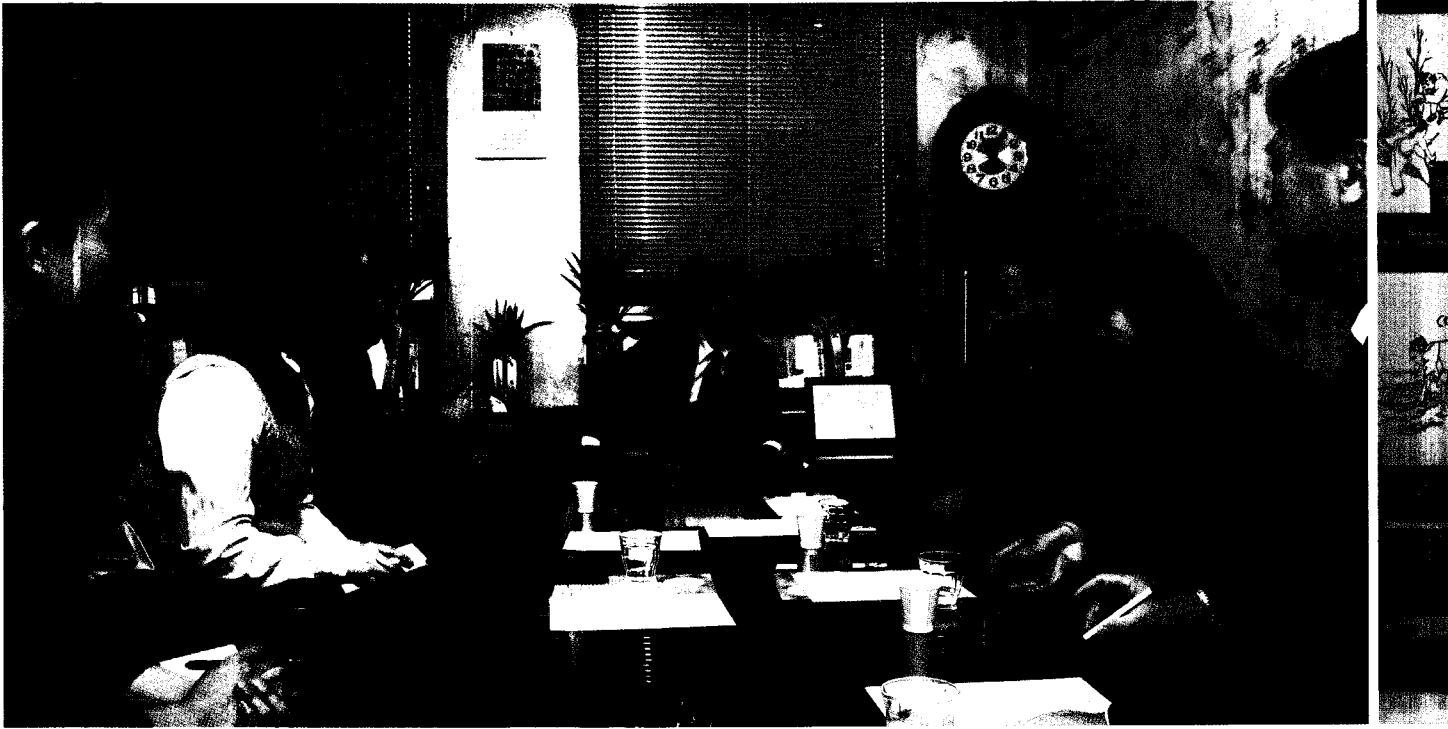
또한 KIPES의 경우 오프셋인쇄는 줄어든 반면 포장인쇄가 증가하는 추세라 인쇄에 포장을 접목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전시회 추세가 주빈국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 KIPES의 경우 ‘주빈 기자재업체 제도’ 를 만들어서 진행한다면 더 풍성해진 전시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꼭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현재 협회에서 인디자인 등의 인력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앞으로 교육과목을 추가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2009년부터 정부의 지원을 받아 협회 교육관에서 디지털인쇄, 수출전문가 양성, 인디자인, 편집교정 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력은 한명이라도 더 양성되면 우리 업계에 도움이 되는 것이기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입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교육대상자들이 협회 교육관에 와서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인쇄기 운용기술자들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인쇄기기 공급업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강사진을 구성한 후 직접 인쇄업체를 방문하여 인쇄품질 향상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교재는 올해 안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즉 내년부터는 인쇄품질 향상 교육이 필요한 업체를 발굴하여 찾아가는 교육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Q 인쇄업계를 대표하는 대한인쇄문화협회와 서울인쇄정보조합의 수장이 50대로 교체되었습니다. 젊은 세대로의 교체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데 회장님께서 이에 대해 의미부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대와 우려의 공존”이라는 말씀을 여러 곳에서 들었습니다. 저는 IT시대로 대변되



는 오늘날의 현실에서 우리 업계가 화합하고 발전하려면 신구의 조화가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임기 동안 원로님들에게 고언을 구하고 젊은 인쇄인들의 두뇌를 빌려 성급한 변화와 개혁보다는 늘 우리 업계의 백년지대계를 생각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협회 이사진의 경우도 무조건 신세대로만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연령층을 다양하게 해서 친구조화를 통해 서서히 변화를 추구하려고 합니다. 또한 노선이 다르다는 이유로 단체 임원으로 참여하지 못했던 분들과도 사업을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이사진을 구성했습니다.

Q 관련 단체와의 공조는 어떻게 추진할 생각이십니까.

관련 단체와의 공조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단체별로 각자 다른 목소리를 내거나 사업의 중복 등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단체장들이 수시 또는 정기적인 회동을 통해 공조와 협조방안을 논의할 것입니다. 단체의 주인은 인쇄인들이지 단체장이 아닙니다. 봉사자를 자임하는 단체장들이 진정으로 인쇄인들이 현재 처해 있는 애로를 생각한다면 단체이기주의나 반목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Q 단체 중복 업무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단체 간의 업무 중복과 영역의 불분명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업계발전에 비효율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해당 단체를 관할하는 정부기관이

다르다 보니 중복 업무 해소가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협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으로 인력양성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를 서울인쇄센터나 인쇄기술협회로 넘길 경우 예산의 지원이나 정산보고가 어렵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인쇄기술협회에서 지경부의 포상을 하고 있는데 대한인쇄문화협회에서 인쇄문화의 날 행사와 정부 포상을 주관하고 있으니 문화협회로 포상을 넘기라 한다면 지경부의 포상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단체장들이 마음을 열고 머리를 맞댄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개선된 모습으로 단체의 업무영역이 조정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Q 일부에서 협회를 인쇄정보센터로 이전하는 게 좋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회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회원사나 조합원사의 입장에서 보면 바람직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간단치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대한인쇄문화협회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설립된 인쇄단체입니다. 1948년 협회가 창립되어 회관을 마련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마포구 서교동 인쇄회관은 인쇄의 보루이며 정통성의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을 지켜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쇄회관에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설립한 인쇄역사박물관과 교육관이 있어 회관을 매각하거나 이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현재의 인쇄문화회관은



“앞으로 제가 인쇄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쇄인으로서, 문화인으로서, 경제인으로서 충분히 누려야 할 품격과 자존감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이러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과 언론계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1988년까지 우리 협회가 총무로서 단독으로 보유하고 사용하던 회관을 단체수의계약으로 인해 회원사의 수가 급격히 늘고 있던 조합과 연합회의 업무공간을 확보해 주기 위해 당시 뜻있는 인쇄 선배님들의 의견에 따라 회관을 매각하고 기금을 기탁받아 오늘의 서교동 회관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때 세금문제 때문에 땅과 건물의 지분을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에 와서 지분문제를 거론하며 재산권 행사를 말하는 것은 회관건립 취지와 어긋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입니다. 일제강점과 6.25전쟁을 겪으면서도 인쇄인들은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여 지식산업을 발전시키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하는데 일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참으로 암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앞으로 제가 인쇄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쇄인으로서, 문화인으로서, 경제인으로서 충분히 누려야 할 품격과 자존감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이러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과 언론계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임남숙 차장 sang@print.or.kr



Q 회원사의 권익보호 방안과 당부의 말씀이 있으시다면.

우리나라는 오천년의 유구한 역사뿐만 아니라 독일의 구텐베르크보다 78년이나 앞서 금속활자를 발명한 인쇄종주국

<김남수 회장 이력 및 약력>

- 1958년 생, 서울 출생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전자공학과 졸업
- 공군 만기 제대
- 1985년 청아문화사 설립
- 대한인쇄문화협회 부회장
- 인쇄물수출진흥협의회 회장
- 서울인쇄조합 이사 및 책자부 간사장
- 서울인쇄센터 이사
- 문화부, 산자부 장관상 수상
- 서울시장 표창장 수상
- 출협 출판유공자상 수상